

오피니언

다산포럼

허시명



술은 지극히 정치적인 음식이다. 국가는 술에 주세라는 특별세를 부과한다.

보통 한국의 술 문화는 단조롭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인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기 때문이 아니다.

음식 만드는 손에 술 솜씨 돌려줘야

급속한 식민지 외래문화의 충격으로 이어달리기하던 문화의 바통을 우리는 분실해 버린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 우리 술 문화는 양조장이 주도해오지 않았다. 주막과 가정집이 주도해왔다. 집에서는 제주로 술을 빚고, 명절 때 술을 빚고, 농주로 술을 빚어서 마셨다.

집 밖을 나서면 주막에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주막에서는 주모가 직접 술을 빚고, 그에 어울리는 음식을 내놓았다.

데 어는 날 갑자기, 주막이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경위는 이렇다.

1909년에 처음으로 일본인의 주도로 주세법이 만들어졌다. 이때의 법령은 주조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술을 빚고 있다고 신고하면 모두 양조면허를 허가해줬다.

제조를 위촉시키고, 술 제조장에서 음식과 함께 파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막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특히 남부지방의 주막들은 대부분 탁주나 약주를 제조하는 경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일본인들이 1935년에 펴낸 <조선주조사>에 나와 있다. "1916년경의 조선주 제조장 12만은 거의 전부가 주막이었으나 그 후 제조장의 집약 정리에 수반하여 점차 그 수가 감소되면서 1919년에는 7만여, 1925년에는 3만여, 1930년에는 5천 이하의 소수로 되었으므로 주류의 수급상 일반 음식점 외에 제조장 전속의 주류 배급소를 각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에 따라

한 군에 10 내지 20, 전 조선 5천~6천의 특정 판매소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술과 음식을 함께 팔던 주막 12만 개가 15년 만에 5천개로 줄어들어 버린 것이다. 주막은 오늘날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일정 거리마다 있었던 휴게의 공간이다. 그때는 길이었다고 하니, 한나절 걸는 시간, 아침에 출발하여 점심 무렵에 도달하는 거리에는 어김없이 주막이 있었다.

술과 음식이 함께하는 주막문화가 현대적으로 복원되어야 할 필요성은, 우리 스스로가 주막문화를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타의에 의해서 박탈되어버린 것, 정치적으로 박탈되어 버렸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 술과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간을 되찾아야 한다. 식민지 시절 과세와 징수의 편의로 했던 일이나, 이제 음식을 만드는 손에 술 빚는 솜씨를 되돌려줘야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교육위원들이 학원측 입장 대변할 수 있나

전남지역에서 오는 5월부터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전남도교육위원회가 최근 열린 제 209회 임시회에서

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학원의 교습시간 단축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는 데 있다.

그럼에도 교육위원들이 시행에 제동을 걸고 학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위원의 본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바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교육계의 폐해를 바로 잡자는 데 있다. 규제 심의까지 마친 단속안이 '선거음'으로 전락한다면 주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능장' 황사 예보 이대론 안 된다

봄철 불청객 황사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황사가 열흘이나 앞당겨지는 등 기상청의 황사 장기예보가 부정확하고, 그나마 단기예보도 겨우 2시간 전에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능장을 부러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은 겨우 2시간 전이라 '주의보'를 내렸다. 지역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황사를 뒤집어 써야 했다. 이 같은 능장 특보는 예보가 아닌 중계라 해야 마다.

올해 우리나라 황사는 지난 1월25일 중부지방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이달 12~13일 전국에서, 13일 중부와 호남 지역에서, 15~16일 전국에서 발생하는 등 잇따라 나타났다.

우리나라 황사는 예년의 경우 4~5월에 많이 왔으나 최근 수년간은 3월, 가을, 겨울 등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도 황사는 발원지인 내몽골의 사막화 확대 등으로 더욱 잦을 것이라 전망자들의 전망이다.

황사는 금속 성분을 비롯해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검출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황사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언제나 지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NGO 칼럼

김선구



신학자가 되면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 추방과 예방을 위한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교육 횟수·시간 및 교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로 규정돼 있으나 과연 제대로 이뤄졌을지는 의문이다.

학교폭력 근절, 첨병은 예방교육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엮여 있지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각계각층에 강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있다.

필자가 지난 6년 동안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상담을 해오면서 학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형식적으로 법 규정이나 맞추자는 식의 교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 전국 64개 초·중·고교생 4천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가해 학생을 분석한 결과 폭력의 유형별로 괴롭힘 42%, 사이버폭력 41.7%, 성폭력 27.2%, 왕따 16.9%가 자신이 한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선 장난 36%, 이유 없음 20%, 상대가 잘못해서 17%, 스트레스 2%, 화가 나서 8%, 친구나 선배 등이 시켜서 3%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시 온산읍에서는 한 교사가 주축이 돼 29개 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하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5~6년 전부터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가 '무지개가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에는 '학교

학교폭력예방은 그 어떤 방법과 수단보다도 폭력근절의 강한 의지를 담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나설 때, 우리 학생들은 폭력 없는 교육환경에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광주지부장·사회복지학박사>

기고

정병열



우리나라에서 예술경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현장에서 필요성이 요구된지 10여년이 넘었다. 점차 확산되는 시장논리는 이에 따른 대응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라고 해서 시장논리 적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됨에도 어려운 이유는 문화예술단체의 예술경영 부재가 문제이다. 기업과 예술단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예술단체나 사회적 기업에서는 아직도 기업이라는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차원에서 기업조직의 구조를 이해하여 냉정한 현실

기업이 자선사업으로 예술인을 후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마케팅' 개념이 도

예술경영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반면, 정부에서도 감시나 관리보다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육성 측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은행가들은 식사를 하면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술가들은 식사를 하면서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예술가들의 가장 큰 쟁점이 재원조성이다. 문화예술단체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부 시장에서 문화예술 단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재정회계를 투명하게 하며 최신 정보의 습득과 세련된 기획, 마케팅의 전문화보다도 적극적인 기금조성(fundraising)에 나서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단체의 기금은 공연비 수입과 함께 기부금품을 후원 받는 것은 재원을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기부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다만, 예술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왜일까? 대부분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재원조성에 필요한 전략적, 마케팅 기법이 부족하다.

입되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에 공헌하는 전략 외에 마케팅 차별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접근하고 있다. 예술단체의 성공비법은 신뢰와 경영이론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며, 좋은 기회와 행운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예술단체는 전체 공연 횟수에 못지않게 그 내용이 중요하다. 좋은 단원의 참여와 좋은 예술감독의 확보가 중요하며, 단원은 급여 수준과 환경 외에 참여 단체 활동과 병행하는 개인적 예술활동의 여건도 변수이다.

단체의 수준과 명성 외에 관련 요소를 잘 소화시켜서 꾸준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야 한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저절로 운영이 될 것 같지만, 경영 측면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분반할만 할 것이다.

<문화시드니에디터 단장·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 부회장>

일부 체육대학 근대식 체벌 '당혹'

이번에 많이 체육대학에 들어갔다. 며칠 전부터 선배들의 집합모임이 있다며 왔다갔다 하면서 얼굴 안색이 안 좋았다. 사실 체육대학의 엄격한 선배 문화, 근대식 체벌이나 분위기는 다 아는 일이다.

이래야 하나 혹은 돌뿐인 요즘 부모들은 '금이야 옥이야' 키우게 된다. 그런 자식이 대학에 갔는데 선배라는 사람들에게 의해 고충을 받는다면 부모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수업이 끝나면 선배들의 교육집합 명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사라지기 바란다. 또한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램일 걸로 본다. <김용권·광주시 북구 문충2동

청소년들 옥살대화 난무... 인성교육 서둘러야

버스 안에서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끝마다 옥살을 섞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나 욕을 하는지 들어봤는데 아예 욕이 섞이지 않고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욕을 섞어서 했다.

이제 욕은 정말 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는 모양이다. 중고생뿐 아니라 이미 초

등학생 때부터 옥살에 익숙하게 길들어지는데 이렇게 옥살에 중독돼 가는 현상은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욕을 접하기 때문인 듯 하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또래들 속에서 과시나 재미를 위해 쓰면서 비롯된다고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한 인성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김옥민·순천시 인제동

無等鼓

하늘에서 흠비가 내리면 왕은 풍악을 금하고 근심했다. 가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을 왕의 부덕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으로 여겼던 시절 이야기다. 대낮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흠비가 섞인 비가 내려도 왕의 탓으로 돌리고 몸조심을 했다.

형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야 중국의 황토가 장거리 이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황사(흠비)를 왕의 부덕의 소치로 여겨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 20일 흑산도에 기상청이 2003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인 시간당 평균 2천

712µg/m³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황사가 광주·전남을 뒤덮었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 황토지대 주변의 급속한 사막화와 불 부족 사태까지 겹쳐 황사 걱정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나서 중국 사막지대 나무심기 운동에 나서

고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거대한 자연이 빚어내는 황사를 사람의 힘으로 온전하게 막기란 불가능하다. 중국 황토지대의 사막화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국이 힘을 모으고, 황사 발생 전 발 빠른 예보로 피해를 줄이는 게 현실적이다. <북경 사회1부장 unipark@

흠비



우리나라의 문헌에도 흠비(雨土)가 나타난다. 백제 무왕 때에는 '서울에 흠비가 내려 낮이 밤처럼 어두웠다(3월)'는 기록이 전해 온다. 백제 근구왕 통치 시절에도 '하루 종일 흠비가 내렸다(4월)'는 문헌이 있다.

역사적 문헌에 나타난 흠비는 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흠비를 뜻한다. 즉 황사(黃砂)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몰려드는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이다. 중국의 내이멍구(內蒙古) 등지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가까운 우리나라에 날아와 여러가지 피해를 주는 게 황사다.

매년 이른 봄부터 황사를 뿜어대는 중국의 황토지대는 이미 180만년 전에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columns for domestic and foreign rates, and contact details for the publisher.